

# 고은 불교대하소설

**“누구요?”**  
 인담은 불현듯 상대방이 짐작되었다. 불림없는 소금고개 저쪽 외딴 집의 남자였다. 보통이 하나 들지 않은 채였고 머리도 가다듬을 겨를이 없이 달려나온 것이 역력하였다.  
 이제 더이상 누구요?라고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대신 인담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풀 밑에서 솟아 오를 때 얼기설기 풀속의 물들이 끓어 감겨지는 것 같은 난처함 때문이었다.  
 “무엇하러 따라오는 것이요?”  
 ...  
 도무지 그녀는 말이 없었다.  
 “들어갑시다. 내가 남자를 데려다 주겠오. ...간담 지친 나그네 짐차리에 끌려 누웠던 일도 해피한 노릇인데... 한술 더 떠서 떠나는 나그네 뒤를 밟는 것은 또 무슨 해피한 노릇이오... 도대체 남자나 남자의 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이오. 그 호젓

안이 습습한 것을 아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눈을 찡눈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남자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었다.  
 “이름이 있는가?”  
 ...  
 여전히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문득 그녀가 귀머거리가 아닌가 하고 여기게 되었다. 아니 귀머거리였다. 솟아 올 한 마디 할 수 없는 병어리인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잔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를 다달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이야 차츰 자연스럽게 짐작해도 될 일이 아니었다.  
 인담은 그때 첫 배곡새가 그의 어깨를 슬쩍 건드리며 날아가는 것에 눈을 크게 떴다. 배곡새는 저쪽 나무 위 우듬지쪽에 올라가 앉아서 그 슬픈 상태로 해 뜨기 훨씬 전의 이른아침부터 하루의 부지런함을 시작하고 있었다.

**곧 세상을 떠날 늙은 아버지는 병어리 귀머거리 딸을 심성 좋아 보이는 수행승에게...**



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게 된 그녀 자신의 낯선 문명에 어찌 눈을 한 밤동안을 앓았는가.  
 그 문명이 아버지의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남자로서는 그녀 자신이 어머니를 버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버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심정도 아니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바닷가의 나뭇재를 듣기 위해서 하루내내 바닷가 개펄에 있는 동안 난데없는 폭풍우가 몰아친 나머지 해일에 어린 남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한사코 달려와 붙잡아 나오자마자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어린 남지만 마을의 아내에 의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버지가 두고 온 어머니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왔을 때는 다시 해일이 쳐들어와 그 시체를 데려간 뒤였다. 그런 어머니에의 어린 기억을 가진 남자는 자리에서 잠깐 그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자책이 그녀의 메글 수 없는 고독과 함께 깊어졌다.  
 그런데 그런 기억에 대해서 이번에는 늙은 아버지마저 혼자 두고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제 인담이 말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대화는 그런대로 성립되는 셈이었다. 가지런 가는 남자에 대해서 인담은 마치 그녀가 그의 오랜 분신이라도 되어버린 것 같은 착각을 털어버리지 않았다.



## 지난날의 씨앗인가

한 외딴 집에서 해묵은 짐승이 툭툭한 것은 아니오?  
 ...  
 어디 그 뿐인가. 승승사발에 아홉한 술을 담아 마시게 하는 남자의 아버지는 사람은 아무래도 수상하기만 하고... 날이 밝는대로 현(縣)의 형방(刑房)이라도 찾아갈 생각이오. 난세에 요괴가 준듯한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니었다.  
 이만치 육박했으면 남자는 단단히 주눅이 들어 풀러나야 하였다. 인담이 그를 부녀의 의도대로 놀아남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은 충분히 밝힌 터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조금씩 날이 밝아지면서 얼굴 윤곽이 분명해지면서도 인담의 말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다.  
 인담은 말을 바꿨다. 글이 점잖게 대할 개량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다가는 그녀를 때려놓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버럭 소리질러 말하였다.  
 “네 이년! 뭐 풀러가지 못할까!”  
 ...  
 남자는 인담의 불호령에 가까운 할담으로 꾸짖는 것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저 고개를 저기 숙고하고 있을 뿐이었다. 허술한 치마저고리인데도 서 있는 모양에는 기골이 숨겨져 있었다. 결코 백년 묵은 여우의 장난은 아니었던 것이다.  
 먼동이 났다. 그토록 완강했던 어둠의 장막은 동쪽 산줄기 위에서 굴러지며 벗어지고 있었다.  
 지난날 지친 나머지 밤잠을 받을 때의 남자와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동근 북처럼 아직 울리지 않는 북소리를 가득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인담은 말린 소리를 질러던 입을 약간 누워했다.  
 “내가 여우가 아닌 것을 여우로 생각할 만큼 모자란 인간인가? 내가 여기저기 주저앉아 공부합시다. 숨을 고르게 내린 일이 이럴 때 아무런 맥도 못주는 지경에 들어있는 것인가?”하고 중얼거린 그는 입

대해로 배곡새란 그 자취를 보이지 않고 세상에 그 울음소리만 보내는 것이다. 한여름의 넓은 골짜기 가득히 채우는 하루내내 배곡새 소리야말로 그것만이 시간의 한 토막들을 나누어 살고 있는 것처럼 계속되다가 어느 때는 밤중까지도 울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인담으로서도 어린 시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것은 당장 남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하나의 기억이었다. 그런 기억이 현실을 한동안 뒤로 미루는 무자위인기도 모른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사흘전 배곡새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간 삶이 다 말라붙은 피골상림의 몸으로 실로 사육신인가. 내

## “병어리’ 남자와의 전생인연이나 따지다니...내가 무슨 공부꾼인가”

만에 부끄러이 낄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타들이 계산 곳이 서방 10만여국토를 지나가야 하는 먼 곳이라는데... 아무리 이승에서 허한 일을 하고도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흔해도 있을 터이지. 그러나 곡락정란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날 저 배곡이 소리가 꼭 아이타를 계산 곳까지 들리는 것 같아서... 저 배곡이 소리와 함께 갈 수 있더냐.”  
 이렇게 말한 다음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홀이불에 달여있는 동안이나 어머니가 알산 기슈 자갈밭 뜰에서 풀린 뒤에도 배곡새는 쉬지 않고 울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인담은 어머니의 죽어감에 대한 열원과 관련하여 사람이 죽은 뒤의 세상을 가르친 관망수령의 한 구절 “여기를 떠나는 것 말지 않도다(去此不還)”가 새삼 목숨을 건드리는 듯 하였다. 그렇겠지. 아무타들이라면 중생을 위한 아이타들이라면 10여국토 밖의 멀고 먼 데가 아니라 바로

중생의 가까운 곳에 계시어야 하겠지.  
 인담은 배곡새에 관련된 기억에 이어 마음 속에 어떤 비넨한 소원이라도 담긴 것처럼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연인으로 대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생각때문이었다.  
 그는 상상하고 있었다. 아이도 소금고개 오두막의 늙은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하나 밖에 없는 병어리 귀머거리의 딸을 심막이 좋아보이는 수행자에게 팔려 보내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서투른 짓이건만 나그네가 자는 방에 남자를 들어가게 하여 한 방에서 밤을 새우게 하는 그 나름의 안타까운 상봉(相逢)의 예(禮)를 치르게 한 것이다. 여기까지 상상하게 되었지만 그 상상은 인담의 심안(心眼)이 밝혀낸 진실이기도 하였다.  
 인담이 남지더러 정답게 손짓하였다. 동행이 허락된 것이다. 남자는 한번 넘어온 소금고개 쪽을 돌아다보았다. 눈을 하나는 혼한지 다시 눈물바람을 하였다. 아니 늙

“그래, 함께 가지. 함께 가는 길이라면 백릿길도 심릿길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도 라면 수미산 남쪽의 큰 땅 남염부제(南嶺浮屠)의 사방에 있는 삶에 사는 열두 짐승(十二畜)이라도 두루두루 만나 그 짐승 보살의 제도를 받게 되겠지.”  
 인담은 《대집경(大集經)》 23에서 말하고 있는 열두짐승인 쥐, 소, 사자(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소,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가 그 경전 발상지인 인도와 너무나 똑같은 중국의 12지(十二支) 짐승의 띠가 떠올랐다.  
 그는 결코 《대집경》을 읽은 일이 없다. 그런데도 그 경전의 한 대목에 나오는 열두짐승이 마치 어찌 읽었던 책속의 기억처럼 선명한 것이 이상하였다.  
 이 세상이란 사람이 현재에서 겪은 것 이외의 일들이 많은 것이야말로 전생의 현실 때문인데 틀림없다. 그러므로 상상이란 전생의 잔재이자 내생의 어떤 화산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전생의 무엇인가.

이 이 남자와 인담 자신과의 전생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인담은 그런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을 때 그 앞을알이를 씩 흘리쳐버렸다.  
 “요망한 것에 매달리다니... 전생의 내 어머니거나 내 하룻밤 정분을 나누고 장차 다시 만날 것을 맹세한 여자거나... 그런 일이나 따지고 있는 내가 무슨 놈의 공부꾼인가... 아무도의 우녀보살이 이런 나를 얼마나 서러왔을 허수아비로 여겼는가.”  
 인담은 혼자 부엌대기도 하다가 말다가 하면서 남자와의 동행으로 오전을 다 보내고 있었다.  
 배다가 공할 수수할 사이로 아무런 위엄도 없이 희롱한 빛깔로 누워있는 곳에 이르렀다.  
 인담이 한 굵은 소나무 밑에 앉았다. 남자도 인담 가까이 앉았다.  
 “이름이라도 있어... 하기가 이름을 버리는 집안에서 이름 타령을 하고 있다

나...  
 인담이 어린이 마음이 되어 물결이 하나를 주어 저만치 떠났다. 그러자 남자도 작은 물결이 하나를 짊어 던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웃은 것은 그때였다.  
 “그래? 그대 이름을 하나 지어보자. 그대 법명(法名)이요.”  
 “물결이를 언저서 웃었으므로 소석(笑石)이라고 부를까.”  
 남자는 인담의 말을 들을 수 없어도 상대방의 움직이는 입을 통해서 그녀의 타고난 술기로 어떤 뜻을 알게 되는 상부른다. 그리고 본뜬 남자의 넓은 이마 속에는 잘 일구어내면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눈빛도 한층 더 검푸르다. 입술도 새로 색깔을 칠한 것처럼 기운이 풀었다.  
 바다도 푸른 빛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

그림·조향숙

###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권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교품, 소시  
 ● 자재용품 ● 연재  
 ● 각종행사 ● 신상용품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척추 및 관절 교정법  
 ● 척·복·비디스크, 신경통  
 ● 안질환 - 중추계방사선  
 ● 미안 관리 기술법  
 ● 운동치료, 전장 지압법  
 ● 시술도 병행함

정삼수 건강연구원  
 연구경력 543-7306

### 전통 찻집 운영하실 분

위치 : 안양 관악역 앞  
 비용 : 보증금 3500  
 시설비 1000 월세 10  
 연락처 : 0343-73-1357

###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함, 염주 | 일체 품목 | 불교악세서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이 구8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 포교당 운영하실 분

● 위치: 용매문구 장안4동  
 ● 임대: 30평, 시설 일체 완비  
 ● 연락처: (02)245-0904  
 ● 비용: 보증금 3000만원  
 시설 일체 1800만원 월세 10만원  
 \*월별 즉시 법적 가능합니다.

###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용, 사진 등 삼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자갈찌,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 불교사업 동참하실 분

● 불교 교육사업에 뜻이 있는 분  
 ● 불교지도자 양성사업 하실 분  
 ● 불교 단체 운영하실 분  
 ● 교육청 인가

만 대교 학 대 학 원  
 동기 1969년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931-6075-6(대))

### 생생한 법이, 생생한 불교사상을 강력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처럼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주목 소문 명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동물,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곧 예약 주문하십시오. 즉시 후속해 드립니다.

● 합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 가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립 6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울림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S(타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라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대표 원광(元光) 植(植) 山(山) 堂(堂)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정)

###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달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절신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백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화재예방용)  
 ● 木材활활방지제(갈라짐 방지)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木) 수질(水) 수질(水) 수질(水))  
 ● 木材탈취제(청변근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윤치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 佛事 (불사)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신비의 불탑다라니" 책자를 스님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불사법 신비인 불탑다라니 <금강경 신심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과잉되는 氣(氣)의 흐름을 제크하여, 질병회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혼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들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적 자료를 현재사명을 수행하시는 스님께만 1번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 방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 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 줄 수 있으며  
 ② 영계의 병의상해, 관념과정의 방해물 확인하여, 영계의 병의상해관념을 관념,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 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바로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 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영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쳐도록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 줄 수 있고  
 ⑤ 김타니, 상가, 사부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번치도록하여 인사행복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해자신경 성지관음회

● 주소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봉림리 30-1 (농촌일당 3주)  
 전화 (0335) 34-9490 39-1908  
 이만 (0342) 706-3060